

광주도시공사 사장 결국 직무대행 체제로

광주시가 3차례 공모 과정에서 부적격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도시공사의 차기 사장 선임을 포기하고, 상임이사(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허술한 공모 절차나 대안 없는 공기업 대표 교체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김종호 기획조정실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차기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3차례 걸쳐 공모를 했으나 적격자가 없었다"며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한 뒤 상임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9월22일 이후 신입 상임이사가 임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공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 부적격 논란...최종후보자 지명 포기 직무대행체제 유지...허술한 공모 책임론

다. 실제 박남일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경우 제임 시절 유성복합터미널조성사업 무산과 경교 처분, 호남향우회를 둘러싼 잡음, 갑(甲)질 의전, 폭행 사건 등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었고 적폐 공공기관장 명단에 오른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여기에 일부 호남 정치인들의 외압설도 끊이지 않았고, 별가를 내고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응모, 도덕성

논란까지 낳았다.

또 건설사 부사장 출신 또다른 후보의 경우 공기업 경영이나 근무경험 없이 민간 건설업체 임원 경력만 전무여서 전문성과 적합성이 도마위에 올랐고 '경력 미스매치'도 논란거리가 됐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가 직무대행 체제를 택했지만 사장 공모를 위해 무려 7개월여 동안 업무공백을 초래한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좁은 인력 풀에,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나선 점도 논란거리다.

또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11개 공공기관장 임명을 추진했으며 현재 도시철도공사와 여성재단 등 9개 기관장을 임명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8월 중 임명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황로와 누렁소 폭염특보가 발령된 25일 오후 경남 남해군 서면 인근 들에는 황로 한 마리가 소가 풀을 뜯을 때 놀라 뛰어들어는 곤충들을 사냥하기 위해 누렁소를 따라다니고 있다.

“신호대기 중 숨진 버스기사 사고 명확한 조사 필요”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사 신호 대기 중 숨진 사고와 관련 25일 '열악한 근무환경이 부른 인재 일기'라는 성명서를 냈다. "광주시가 명확하게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뉴스와 통화에서 "버스 기사의 경우 젊은 층이 지원하지 않는 힘든 직종이어서 만 60세로 정년퇴직했던 기사가 비정규직 형태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 형태도 정규직(1일 2교대)과 다른 하루 근무하고 하루

휴식을 취하는 형태이지만 고용 불안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은 몇시간 휴식을 취한 뒤 이를 연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의 경우 운행시간이 긴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으로 연결되는 어려운 노선에 배치되고 있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운전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금협상 등을 할 때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사측은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발생한 60대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숨지는 사

고도 신호 대기 중이었지만 버스가 주행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 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책임 지는 사람은 버스 운전기사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4시10분경 전남 화순군 화순을 한 은행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66)씨가 신호 대기 중에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버스는 1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규 기자

한밤중 횡감에 바다뛰어든 40대 선원 구조

한 밤중 정박 중인 선박에서 횡감에 바다로 뛰어든 만취한 40대 선원이 해경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25일 북포해안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11시48분께 전남 북포시 북항신척항 앞 해상에서 정박해 있던 9.7t급 인선선적 연안저장 M호에서 김모(42)씨가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순찰정과 서해특구대를 급파해 해상에서 허우적거리던 김씨를 20여분만에 구조했다.

술을 마신 뒤 선주와 통화하다 횡감에 바다로 뛰어든 김씨는 인근에서 낚시하던 낚시객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해경에 신고해 구조됐다.

김씨는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선주에게 인계됐다.

부부 싸움 뒤 안방에 불지른 50대 주부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부부 싸움 뒤 아파트 안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5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2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1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옷장 안에 있는 옷과 가방 등을 꺼내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술에 취해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거실에서 잠 들어버린 남편에게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으며 새벽 시간대 아파트 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마약 투약 눈감아주고 뒷돈 챙긴 경찰관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굶판을 챙긴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현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위모(37)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위 경위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마약사범 유모(36)씨의 마약 투약을 확인하고도 체포하지 않거나 간이 시약기를 건네는 등의 대가로 모두 700만원 상당의 굶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유씨의 집에 지난해 2월 출동한 위 경위는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씨 지인의 수배정보를 알려주거나, 마약 범죄를 받는 유씨에게 조언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위씨의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1월 수사에 착수, 이달 초 위 경위를 체포했다.

내리막길 정차 덤프트럭 밀려 차량 13대 파손

25일 오전 9시 25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면 한 도로 내리막길에 정차된 덤프 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차량 13대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7)씨가 청북면 한 경사진 도로면에 정차한 25t덤프트럭이 180m 앞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차량 13대의 옆면을 부딪친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13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가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주차 장치를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부대에서 전봇대 쓰러져 60대 사망

24일 오후 3시 30분께 강원 화천군 상서면 마천리 모 부대 내 전주이설 작업 중 전봇대가 쓰러져 A(60)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동료들과 전주이설작업 중 쓰러지는 전봇대에 부딪쳐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춘천 모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년연속 우수축제

제10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2017. 7. 28. 금 ~ 8. 3. 목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Jeongnamjin Jangheung Aqua Festival

2017년도 1번지
강진방문의해
VISIT GANGJIN 2017 EBBS

2017. 7. 29-8. 4. (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청자할인판매] 2017. 7. 28. - 8. 6. (10일간)

The 45th
Gangjin Celadon Festival
제45회 강진 청자축제

흙, 불 그리고 사람

Imagine your Korea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7. 30.(토) ~ 8. 3.(목)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강진청자축제장 연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